



최희섭

추신수 또...몸맞는 공 10개 팀, 110년만의 기록

출루율 0.521 메이저리그 1위

‘추추 트레이너’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몸에 맞는 공 10개 팀을 갈아치우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출루율 1위 자리를 이었다.

추신수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 다섯 차례 타석에 들어서 무안타에 그쳤다. 하지만 추신수는 볼넷과 고의사구, 몸에 맞는 볼로 세 차례 출루했다.

전날 경기에서 다섯 차례 모두 출루에 성공, 메이저리그 전체 출루율 단독 선두에 오른 추신수는 이날 출루율이 0.523에서 0.521로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 부문 1위를 유지했다.

추신수는 특히 몸에 맞는 볼 하나를 더해 개막 한 달 만에 모두 10개의 사구를 기록, 팀의 월간 최다 몸에 맞는 볼 기록을 새로 썼다. 종전 기록은 1903년 5월 마이크 톨런이 세운 9개다.

추신수는 올 시즌 첫 고의사구도 얻어냈다. 추신수가 고의사구로 걸려나간 것은 2011년 6월 18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 이후 처음이다.

추신수는 올 시즌 개막전부터 19경기 연속으로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시즌 최종전까지 기록한 13경기를 더하면 32경기째 출루다. 안타 없이 경기를 마친 추신수의 타율은 0.382에서 0.366으로 떨어졌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3회 2사 2루에서는 상대 선발 투수 트레이비스 우드로부터 볼넷을 얻었다. 6회 선두 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우드의 공



신시내티 레즈 추신수가 23일(한국시간) 미국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 6회에서 트레이비스 우드의 투구를 오른쪽 팔에 맞고 있다. /연합뉴스

이 오른 어깨 쪽을 스쳐 1루 베이스를 밟았다. 7회 2사 3루에서는 삼진, 2-2로 맞선 연장 10회 1사 1루에서 고의사구, 연장 12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좌익수 뜬공으로 돌아섰다. 신시내티는 연장 13회 세자르 이스트리스의 끝내기 안타가 터져 5-4로 역전 승했다. /연합뉴스

투아웃 이후 더 강한 ‘2사 타이거즈’



나지완

이웃 카운트별 타율·장타율

	타율	장타율
노아웃	0.270	0.408
1아웃	0.291	0.419
2아웃	0.294	0.469

2013 시즌 이닝별 득점 현황(106득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2회	계
득점	13	5	12	7	12	11	26	3	16	1	106
2사후득점	9	2	6	3	4	2	14	3	7	1	51

·7회 이후 46 득점(43%) ·2사 이후 51 득점(48%)

확~달라진 KIA 화끈한 공격야구
 팀타율 3할 육박... 타점 전체의 절반

공백을 딛고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시즌 KIA는 볼펜의 난조와 타선의 경기 후반 침묵이 겹치면서 18차례 볼펜세이브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 시즌은 경기 초반은 물론 후반에도 끈질긴 공격이 전개되면서 타자들이 승리를 지키고 있다.

2012시즌에는 7회 이후 나온 득점이 164점으로 전체 득점(553)의 29.6%의 수준이었다. 2013 시즌에는 7회 이후 홈을 밟은 주자가 46명으로 전체 득점(106)의 43%를 기록하고 있다.

2사에서의 집중력도 높았다. 아웃카운트가 높아질수록 타율과 장타율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노아웃에서의 타율과 장타율은 0.270과 0.408 원아웃에서는 0.291, 0.419를 기록했고, 투아웃에서는 0.294와 0.469까지 높아진다.

타율의 변화 추이는 2사 이후 득점과 직결된다. 2사에서 올라간 점수는 51점으로 전체 106점의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는 스윙이 계속되면서 ‘2사 타이거즈’는 올 시즌 KIA 타선의 집

중력을 대변하는 애칭이 됐다.

타선의 뒤편은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다.

선발 투수들에게는 ‘버티면=승’의 공식이 생겼다. ‘약속의 7회’를 앞둔 6회까지 마운드를 지키고도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지난 10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소사가 7.2이닝을 소화했지만 마무리 앤서니 가 9회 2사에서 양의지에게 동점포를 허용하며 승리를 날린 적이 있다. 팀은 12회말 2사에서 나온 나지완의 끝내기 타로 승을 가져갔다.

경기 후반 쏟아지는 득점은 허약한 볼펜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후반 득점이 사실상 ‘필승조’ 역할을 하면서 볼펜 대란에도 KIA의 승이 쌓여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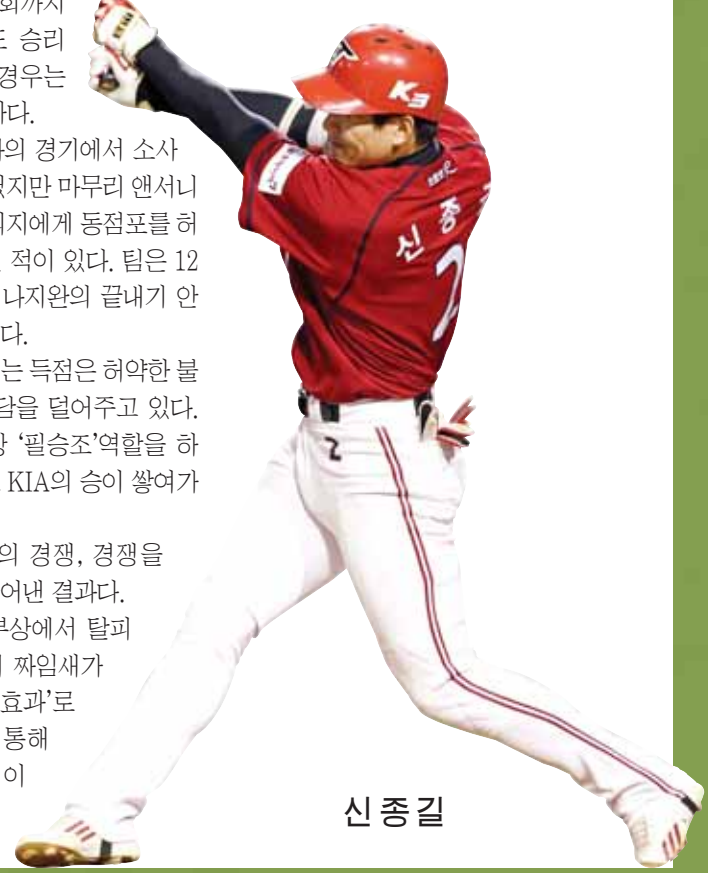
부상 탈출, 타선의 경쟁, 경쟁을 통한 자신감이 만들어낸 결과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에서 탈피하면서 KIA 타선의 짜임새가 좋아졌다. ‘김주찬 효과’로 불이 붙은 경쟁을 통해 전력 업그레이드도 이뤄졌다.

그 결과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최희섭이 20타점을 채우는 등 나지완(14), 신종길(13), 이범호(11), 김선빈(7), 김주찬(7) 등의 고른 활약으로 이어졌다.

‘상대 효과’도 있다. 산 넘어 산의 타선이 완성되면서 상대 투수들의 부담은 더해졌다. 그리고 동료이자 경쟁자로서의 타격 경쟁은 타석에서의 자신감과 호감 이 공격 본능을 키우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종길



주말리그 전라권 우승팀 광주일고가 힘있는 공격과 총출동 마운드를 앞세워 왕중왕 타이틀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왕중왕’ 도전

주말리그 전라권 1위

공·수 탄탄 우승 자신

광주일고가 공·수·주의 탄탄한 전력으로 왕중왕에 도전한다.

광주일고는 호남은 물론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야구의 메카다.

‘빅리거 3인방’ 서재용·최희섭(이상 KIA)·김병현(넥센)을 배출하며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고, 올 시즌에는 엄경엽 감독이 넥센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KIA 선동열 감독과 LG 김기태 감독 등 광주일고 출신 ‘사령탑 3인방’의 리더십이 조명을 받고 있다.

올 시즌 1군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서재용·김상훈·최희섭·신종길(이상 KIA), 김병현·김정호·서건찬(이상 넥센), 정성훈·이대형(이상 LG), 이정호·허경민(이상 두산), 여건욱·김성현(이상 SK), 이호준(NC), 김대우(롯데), 유창식(한화) 등 선배들도 정정하다.

후배들도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라권 1위에 오르며 ‘전통의 강호’로서 명성을 잇고 있다.

광주일고는 최근 끝난 주말리그 전반기 최종전에서 순천 효천고를 5-0으로 꺾고 전라권 1위에 올랐다.

효천고를 상대로 완봉승을 거둔 사이드암 윤종현이 최우수 선수상, 우완 문지훈은 우수투수상을 수상했다. 문지훈은 ‘꽃재지’ 문희수 동강대 감독의 2세대. 수비 기반기가 좋은 2루수 김원욱은 수훈상을 받았다. 김선섭 감독과 김순환 부장은 각각 감독상과 지도상을 받는 등 광주일고가 전반기 상을 휩쓸었다.

후배들도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라권 1위에 오르며 ‘전통의 강호’로서 명성을 잇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용은·배상문·김경태 발렌타인챔피언십 출전

내일 경기도 이천시 티오프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양용은(41·KB금융그룹), 배상문(27·캘러웨이), 김경태(27·신한금융그룹)가 국내 골프팬에게 올해 첫선을 보인다.

이들은 25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이천의 블랙스톤 골프장(파72·7281야드)에서 열리는 유럽 프로골프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유럽투어 대회로, 올해 한국 프로골프투어의 시즌 첫 대회이기도 하다. 6회째를 맞

았으나 아직 한 번도 한국선수가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린 적이 없어 올해는 자존심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용은, 배상문, 김경태로선 시즌 첫 우승의 기회이기도 하다.

아시아 최초의 메이저대회 챔피언인 양용은은 2009년을 빼고 매년 이 대회에 나선 ‘단골손님’이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에서 첫 탈락하는 등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부활의 샷’을 날릴지 관심을 끈다.

세계랭킹 7위이자 2010년 브리티시 오픈 우승자인 루이 우스티히즌(남아공), 유럽프로골프투어에서 통산 8승을 올린 폴 로리(스코틀랜드) 등이 출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